



지난 19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 기념재단을 방문한 '재독한국여성모임' 회원과 가족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5·18 민중항쟁을 담은 동영상상을 시청하고 있다.

“30년간 유럽에 5·18 알렸죠”

‘재독한국여성모임’ 7명 가족·친구들과 광주 방문

“내 남편, 내 친구들에게 조국의 민주화 성지인 광주를 보여주게 돼 한없이 자랑스롭습니다”

독일에 살면서 30년 동안 유럽에 5·18을 알렸던 한국 여성 7명이 광주를 찾았다.

이들은 1970·80년대 독일로 파견된 간호사·유학생들로 조국의 민주화와 여성운동의 활성화를 염원하며 만든 ‘재독한국여성모임’ 회원들이다.

이들은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뉴스를 접한 뒤 독일에서 민주화운동을 전개하고, 30년 동안 독일에 사는 한국 지식인들과 함께 ‘유럽오월민중제’를 명절처럼 지내온 사람들이다.

재독한국여성모임 회원 7명은 19일 가족·친구들 10명과 함께 광주를 방문했다. 3박4일 일정의 고국·고향 방문이 목적이었지만 이들은 광주를 가장 먼저 찾았다.

7명 가운데 2명만이 광주가 고향이었지만 이들이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곳은 5·18 민중항쟁의 현장이었다.

빠듯한 체류 일정에도 광주를

찾은 이들은 남편과 친구들에게 국립 5·18민주묘지와 상무대 영창을 보여주며, 고통의 역사와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설명하느라 분주했다.

이날 5·18기념재단을 찾은 이희숙(58·독일 뮌헨)씨는 80년 당시 독일에서 5·18 민중항쟁을 접하며

70·80년대 독일 간호사 파견 매년 ‘유럽오월민중제’ 열어 민주화성지 방문 자랑스러워

분노했던 때를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씨는 전남여고를 졸업하고 1976년 독일 간호사로 파견돼 일했다. 1980년 5월, 독일 제1국영방송의 뉴스로 고향 광주의 처참한 광경을 본 이씨는 분노와 놀람으로 쓰러지기까지 했다. 이씨는 “아는 친척들에게 계속 전화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라며 함께 온 남편 프란츠 루스티게(53)씨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시 독일 베를린 시립병원에서 근무한 송금희(62·독일 프랑크푸르트)씨도 친구 기를라(62)씨에게 기념재단 벽에 걸린 5·18 민중항쟁 당시 옛 전남도청 앞 시위대 사진을 설명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송씨의 설명을 들던 친구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히틀러 독재와 유대인 학살에 대한 역사적 경험 때문에 독일인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요성을 쉽게 이해하고 있었다.

1976년부터 독일 간호사로 일했던 박정숙(60·독일 프랑크푸르트)씨는 독일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광주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5·18 민중항쟁 유인물을 만들고, 파견 시위에 참여했다. 80년 당시 한 달 사이에 1000여명의 베를린 시위조직이 만들어졌다. 조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독일에서나마 널리 알려 한국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였다.

재독한국여성모임 대표 유정숙(57·독일 베를린)씨는 “현재까지도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동포들은 한국의 민주화와 5·18을 회상하며 그 뜻을 이어가기 위해 토론회를 여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특파원 yang@kwangju.co.kr

광주지역 서울대 합격자수가 3년 연속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5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서울대 합격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는 광주과학교고(41명), 전남과학교고(36명), 금호고(30명), 고려고(28명) 등 4개교가 포함됐다.

이들 고교를 지역별로 나누면 서울이 51개교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합격자 수도 3211명으로 전체(5458명)의 58.8%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14개교·650명), 대구(7개교·262명), 대전(7개교·240명), 부산(5개교·273명), 광주(3개교·99명), 경남(2개교·104명) 순이었다.

한편, 최근 4년 동안 서울대 합격생이 가장 많은 학교는 서울예고로 340명이었다. 이어 서울과학교고 324명, 대원외고 266명, 한성과학고 159명, 선화외고 140명 순이었다.

광주시교육청은 합격자수는 전국 5위지만, 매년 수능응시생 비율이 전국 대비 2%대인 광주지역 학생들의 서울대 합격률(4.2%)은 서울을 제외하곤 가장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영기자 penfoot@kwangju.co.kr

3년간 서울대 합격자 수 광주 5위·전남 13위

광주 428·전남 272명

전남의 합격자수는 2007년 80명, 2009년 89명, 2010년 103명 등 모두 272명으로 3년 연속 13위에 머물렀다.

또 최근 4년(2007년~2010년) 동안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한 상위 100개교에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광주과학교고(41명), 전남과학교고(36명), 금호고(30명), 고려고(28명) 등 4개교가 포함됐다.

이들 고교를 지역별로 나누면 서울이 51개교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합격자 수도 3211명으로 전체(5458명)의 58.8%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14개교·650명), 대구(7개교·262명), 대전(7개교·240명), 부산(5개교·273명), 광주(3개교·99명), 경남(2개교·104명) 순이었다.

한편, 최근 4년 동안 서울대 합격생이 가장 많은 학교는 서울예고로 340명이었다. 이어 서울과학교고 324명, 대원외고 266명, 한성과학고 159명, 선화외고 140명 순이었다.

연영기자 penfoot@kwangju.co.kr

휴대전화·MP3·전자사전 반입 금지

수능 부정행위 등 발표

교육과학기술부는 수능시험 부정행위의 유형, 반입금지 및 휴대 가능 물품, 수험생 유의사항 등을 정리해 20일 발표했다.

시험 대리응시, 무선기기 이용, ‘커닝’(다른 사람의 답안을 몰래 보는 것) 등 고의적·계획적 행위는 대표적인 부정행위 유형이다.

그 외에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을 지니고 있거나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점검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 등

도 부정에 해당한다.

4교시 탐구영역을 응시할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것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당해시험 무효, 1년간 응시자격 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총 96명의 부정행위자가 적발돼 시험성적 무효 처분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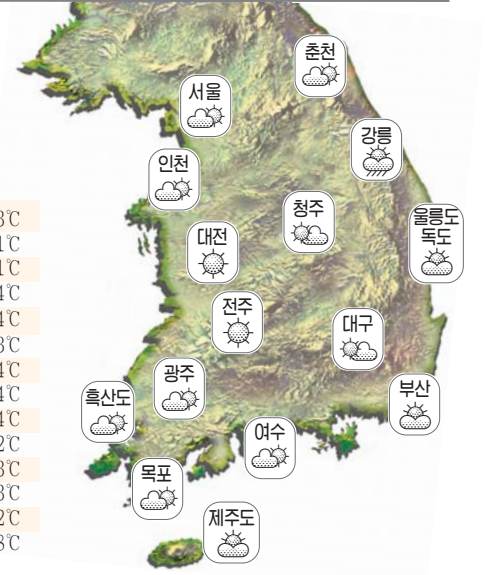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전화·디지털 카메라·MP3·전자사전·카메라렌즈·전자계산기·라디오 등 모든 전자기기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점검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 등

연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43분 해질 17시 51분 달돋이 16시 34분 달질 04시 51분

가을에 쓰는 편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다.



광주	구름점차적어짐	12/23°C
목포	구름점차적어짐	12/21°C
여수	구름점차적어짐	16/21°C
완도	구름점차적어짐	13/24°C
구례	구름조금	10/24°C
애남	구름점차적어짐	9/23°C
장흥	구름점차적어짐	11/24°C
고흥	구름점차적어짐	11/24°C
순천	구름점차적어짐	13/24°C
영광	구름점차적어짐	10/22°C
진도	구름점차적어짐	10/23°C
전주	구름조금	10/23°C
남원	구름조금	7/22°C
옥산도	구름점차적어짐	15/18°C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	보통	주의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0~2.0m	☀	보통	주의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5~2.5m	☀	보통	주의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목포 00:49	06:12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0~2.0m	13:15	18:35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5~2.5m	여수 07:56	01:43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2.0~4.0m	20:09	14:00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씨	22(금)	23(토)	24(일)	25(월)	26(화)	27(수)
최저/최고	11/24	11/24	12/23	14/17	10/15	7/16

2500만 고객을 위한 블록버스터 카드
Touch 1 카드 출시!
나라의 반을 움직일 카드, 고객이라면 이제 지갑 속에 하나SK카드 하나만
카드 최저 50% 할인 / 영한 연간 2회 무료 / 주회, 매월 2만 원 할인 / 학원 매월 1만 원 할인

하나SK카드

가족사랑 태교 콘서트

광주 남구 27일 개최

광주시 남구는 오는 27일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임신부 및 가족과 주민 등 400여명을 초청해 ‘사랑, 그리고 280일간의 설렘’ 가족사랑 태교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시작되는 콘서트의 1부 공연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양유진, 피아니스트 재갈소망, 첼리스트 김소연 등이 현악 3중주 연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 2부 공연은 베이스 함석현의 ‘사랑의 묘약’, 3부에서는 연출가 김학민의 오페라 작품 ‘오르페오’에 대한 해설이 펼쳐지게 된다.

SINCE 198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매우 잘 들립니다. *안보입니다.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본점 (062) 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총장점 (062) 227-9970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익산점 (063) 851-2422

고소득 약초재배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모집공고

임야에서 재배되고 있는 총 85종의 임산물에 대한 지원 및 보조사업 정책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임·농가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주어짐에 따라 고소득 사업의 일환으로 약초재배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 조합원과 준 조합원의 모집을 공고합니다.

1. 재배품목: 산양삼(장비삼), 적하수오
2. 재배규모: 약 26ha(약 7만7천평)
3. 재배지역: 전라남도 일원 임야
4. 지원자격: 만 40세 이상·50세 미만으로 약초재배에 관심 있는 분으로 직접참여 가능한 분.
5. 거주제한: 광주, 전남 지역내에 거주하는 분
6. 출자금액: 정 조합원 3천만원 (3천평) 준 조합원 5백만원 이상 (3백평)
7. 지원일시: 2010년 10월 20일~10월 26일 17시 까지 (7일)
8. 지원방법: 서류지참 직접방문
9. 접수장소: 전남 순천시 덕림동 1106번지
10. 전 화: 061) 741-3389 / 010) 6886-4533
11. 이메일: dream0506@hanmail.net
12. 인터넷: www.simmemani.org/www.3309.or.kr
13. 서류제출: 2010년 10월 26일 까지 (영농법인 설립용)
14. 구비서류: 인감2통/주민초본2통/주민증 사본 1/도장
15. 주 관: 한국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임야 10만평 이상 소유하신 분, 또는 산삼씨나 산양삼씨 대량 보유자도 정 조합원 출자금으로 대체가능.

(가칭)○○산양삼 영농조합법인